Book Band 10 . Journeys/Going Places - Hamster Rampage

Cover Note?

- 스토리 북의 앞면과 뒷면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읽기 수업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Front Cover Note	
Before reading (책을 읽기 전)	책을 읽기 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 책의 앞뒤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이 무엇일지 이야기해보세요. 아이들이 햄스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햄스터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과는 햄스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 2-3 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고 아이들이 가보았던 장소를 확인해 보세요. 이 장소들 중 가봤던 곳이 있다면, 그 곳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아이들과 가보았던 다른 장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세요. • 책의 나머지 부분을 훑어보면서 그림을 보세요. 햄스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Tricky words (헷갈리는 단어)	Here are some tricky words that your child will read in this book: 다음은 아이가 책에서 처음 접하게 되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dungeon(지하감옥)/museum(박물관)/dinosaur(공룡)/photographs(사진) / podgy(뚱뚱한) / terrified(공포에 질린) / attention(주의) / queue(줄)

Back Cover Note	
After reading (책을 읽은 후)	책을 읽은 후 아이와 같이 이야기 해 보세요. 아래의 질문을 물어보세요: • 런던의 어떤 장소에 가 본 적이 있나요? • 햄스터가 커지는 것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피클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 맥스는 어떻게 피클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나요? • 런던 아이에서 달리고 있는 햄스터의 모습이 왜 그렇게 우스꽝스러웠을까요? •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나요? 왜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왜 그러가요?

	아이가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지도해주세요. 읽기에 자신감과 실력을 쌓아줄 것 입니다.
Other things to do (다른 액티비티)	아이들과 어딘가로 나가서 아이들이 보고 것들과 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보는 날을 계획해보세요. 그리고 그 나들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사진을 사용해보세요. 아이들이 원한다면, 글로 써 보는 것도 좋습니다.

Book Band 10 . Journeys/Going Places - Hamster Rampage

Storybook?

- 스토리 북 교재 내용에 대한 번역입니다. 수업 준비 시, 미리 참고하세요.

Storybook	
2pg.	런던 지도 자연사 박물관
3pg.	런던 지하감옥 런던 아이 빅벤
4pg.	1 장-짐 싣기 “얘들아 가자! 서두르지 않으면 기차 놓치겠다.” 앤트 엄마가 불렀어요. 아이들은 매우 신났어요. 앤트의 엄마, 아빠가 특별상으로 런던에 데려가 주기로 했거든요.
6pg.	“박물관은 다 가 보고 싶어.” 앤트가 말했어요. 자연사 박물관에는 굉장한 공룡뼈가 있지.” “난 런던 지하감옥에 가서 공포물을 다 보고 싶어.” 타이거가 말했어요. “난 빅벤을 보고 싶어.” 캣이 말했어요. “나는 런던아이에 가보고 싶어.” 맥스가 말했어요.
7pg.	맥스는 시계를 써서 작아지지 말라고 모두에게 경고했어요. 런던은 큰 도시였습니다. 맥스는 아이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맥스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8pg.	하지만 맥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캣이 비명을 질렀거든요. “으윽! 그게 뭐야 앤트?” 캣이 말했어요.
9pg.	“그건…어, 아무 것도 아니야.” 앤트가 말했어요. 털복숭이, 조그만 코가 앤트의 바지 주머니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너 피클 데려왔지, 맞지?” 맥스가 말했어요.

	“쉿.” 앤트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마. 집으로 돌아갈지도 몰라. 나는 그냥 피클도 런던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았단 말이야!”
10pg.	2 장- 관광하기 아이들은 런던 시내를 구경하며 매우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약간 붐비긴 했지만 아이들을 가보고 싶었던 곳을 모두 가보았어요. 앤트는 시계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었어요. 먼저 자연사 박물관을 갔습니다.
11pg.	그리고는 런던 지하감옥을 갔어요. 그리고는 빅벤을 보러 갔지요.
12pg.	3 장- 배고픈 햄스터 아이들은 빅벤을 본 후 큰 다리를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앤트 엄마가 모두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앤트는 주머니에서 피클을 꺼내 신선한 공기를 쐬게 해 주었어요.
13pg.	“피클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하지 않을까?” 타이거가 말했어요. 앤트가 말리기도 전에, 타이거는 자기 아이스크림에 손가락을 푹 찔러넣더니 피클이 핥아먹도록 내밀었습니다. 햄스터는 아주 게걸스럽게 아이스크림을 먹어치웠습니다. “이것 봐! 좋아하네!” 캣이 말했어요. “아이스크림 먹이면 병 날지도 몰라!” 맥스가 말했어요.
14pg.	“맞아!” 앤트가 말했어요. “그만 줘, 타이거” 앤트가 피클을 끌어당겼어요. 앤트가 피클을 끌어당길 때, 아이스크림 덩어리가 앤트의 시계에 떨어졌어요. 시계에서는 치지직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초록색 불빛이 나와 햄스터에게 향했습니다.
15pg.	“방금 뭐였지?” 타이거가 놀라서 숨막힐 듯한 소리로 말했어요. “모르겠어.” 앤트가 대답했어요. “피클은 괜찮아?” 캣이 물었어요. 앤트가 피클의 눈을 자세히 보았어요. 눈이 초록빛으로 보였어요.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앤트가 말했어요. “좀 뚱뚱해 진 것 같아.” 맥스가 말했어요. “오늘은 더 이상 아이스크림은 없어, 피클!”

16pg.	4 장- 커지고 또 커지고 상으로 받은 여행의 마지막 날은 런던아이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런던아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피클 살쪘다고 하더니 네 말이 맞다, 맥스” “주머니에 들어가지를 않네.” 앤트는 주머니에서 피클을 꺼내 두 손으로 들고 가야 했습니다.
17pg.	“햄스터가 아니라 고양이 같은데!” 타이거가 웃었습니다. “빨리,” 맥스가 말했어요. “너희 부모님이 보시기 전에 빨리 내 가방에 숨겨.” 하지만 피클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18pg.	앤트 부모님은 탑승 티켓을 사러 가셨습니다. 아이들은 뒤에다 가방을 숨겼습니다. “여기 있으렴,” 앤트 아빠가 말했어요. “말썽 피우면 안된다.” “그럼요,” 아이들은 착한 목소리로 모두 대답했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9pg.	“안돼!” 캣이 비명을 질렀어요. “피클이 계속 커지고 있어!” “자전거만해!” 타이거가 말했어요. “자동차만해!” 앤트가 외쳤어요. “버스만해!” 맥스가 말했어요.
20pg.	사람들 중의 한 여자가 피클을 보더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몸을 돌려 쳐다봤지요. 피클도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피클은 겁에 질려있었습니다. 피클이 런던아이를 보았습니다. 런던아이는 마치 집에 있는 우리 속의 햄스터 쳇바퀴 같이 보였습니다. 피클은 전속력으로 달려가 런던아이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피클은 런던아이를 매우 빠르게 회전시키며 런던아이를 바퀴처럼 달렸습니다. “불쌍한 피클!” 앤트가 안타까움에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더 불쌍해.” 타이거가 말했어요.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린 것 같았어요.
22pg.	5 장- 거대한 골칫덩이 “우리 어떻게 해?” 앤트가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어.” 맥스가 말했어요. “그 막대 벌레, 우디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해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피클을

	붙잡고 있어야 해. 그 때 시계를 써서 줄어들게 하는 거지.”
23pg.	“좋아.” 캣이 말했어요. “그런데 저 거대한 바퀴 위에 있는 햄스터를 무슨 수로 붙잡을건데?” “피클을 유혹해서 끌어오는 거야.” 앤트가 말했어요. “아이스크림으로 유혹하는 건 어때?” 맥스가 제안했어요. “피클이 좋아하는 거 봤잖아.” “엄청나게 큰 아이스크림이어야 할 것 같은데.” 캣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파는 트럭을 쳐다보았어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타이거가 말했어요. 타이거가 아이스크림 트럭으로 달려갔어요.
24pg.	“실례합니다.” 타이거가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 좀 빌려가도 될까요?” 타이거가 트럭 앞에 있는 큰 플라스틱 아이스크림 모형을 가리켰어요. 트럭의 아저씨는 거의 듣지 않고 있었지요. 아저씨는 거대한 햄스터를 보느라 바빴거든요.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타이거는 거대한 아이스크림을 집어 들어서 맥스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25pg.	6 장- 야호, 햄스터! 런던아이의 바퀴는 점점 더 빠르게 돌고 있었습니다. 캣과 앤트는 햄스터의 주의를 끌려고 했습니다. “피클!” 아이들이 불렀습니다. 타이거는 거대한 아이스크림을 흔들었습니다. 피클이 아래를 한 번 내려다보고선 아이스크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멈추었지요.
26pg.	피클이 뛰어내리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타이거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 달렸습니다. 피클은 아이스크림을 뒤쫓아갔습니다. 맥스는 피클의 뒤를 쫓았습니다. 맥스는 피클의 길고 덥수룩한 털을 붙잡았습니다. “잡았다.” 맥스가 피클의 등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27pg.	피클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클은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맥스는 더 꽉 붙잡아야 했습니다. 맥스는 마치 야생마 위에 올라탄 카우보이 같았지요.

	“빨리!” 앤트가 소리쳤어요. “시계를 써, 지금!” 맥스가 시계의 다이얼을 돌리자…
28pg.	피클은 금새 원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맥스는 피클의 등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맥스는 다시 시계의 다이얼을 돌려 되돌아왔지요. 앤트는 피클을 주머니에 집어넣을 때 바로 앤트의 엄마 아빠가 티켓을 사서 돌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감추었지요.
29pg.	“오 이것 봐.” 엄마가 말했어요. 줄 서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탈 수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앤트, 피클을 데려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엄마, 그 말은…” 앤트가 말했어요. “그럼, 물론이지, 우리는 이미 네가 피클을 데려온 걸 알고 있었단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얘야 우린 바보가 아니란다!”
30pg.	아이들은 런던아이의 맨 꼭대기에서 런던을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클은 다니는 내내 앤트의 주머니 속에 꼭꼭 숨어있었습니다. 피클은 하룻동안 놀만큼 놀았거든요.
31pg.	런던 최신 뉴스 (3 월 31 일 목요일) 런던뉴스 거대한 햄스터인가 거대한 장난인가? 총리가 오늘 런던에 거대한 햄스터가 출현했다는 주장을 일축시켰다. 총리는 “만우절 거짓말일 뿐이다.” 라고 전했다. 한 기자가 지금은 3 월이 아니냐 라고 지적하자 총리는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럭 장사 백만장자 되다 트럭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상인이 아이스크림에 햄스터 스낵 맛을 첨가하는 아이디어를 애완동물 식품 대기업에 팔아 백만 파운드가 넘는 돈을 벌게 되었다.
32pg.	더 찾아보세요… 놀라운 모험 여행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파도타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로키 산맥에서 생긴 일을 읽어보세요.